

# 原子力PA 促進을 爲한 提言

教師, 醫師 등 여론지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위해 日本原子力文化振興財團은 최근 「原子力·歐洲에서의 指針」이라는 報告書를 刊行하였다. 이 보고서는 同 財團이 작년 가을에 파견한 「歐洲原子力PA事情視察團」이 종합정리한 것으로서, 各 訪問處에서의 “市民의 소리”도 수록되어 있다. 다음은 同 報告書를 요약정리한 내용이다.

## 冷靜한 市民의 눈

街頭의 소리인 「시민의 소리」에서 그 대표적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스웨덴은 2010년에 원자력발전소를 전부 폐기한다고 듣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일본측 시찰단)

-무슨 대체에너지가 있다면 될텐데, 그런 것이 나올까요?(주부·35세·은행원 : 스웨덴 스톡홀름)

「이 지역(고아레벤)에 원자력시설(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생기고 나서 뭐가 변했나요?」(일본)

-나는 부엌에서 항상 일하고 있지만 생활환경으로서서는 평화롭고,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다.(주부·60세 : 서독 고아레벤)

「당신은 세라필드 인근에 있는 시즈케일마을에서 부동산회사에 종사하고 있는데, 세라필드가 가까이에 살고 있다는 점 때문에 세라필드공장의 안전이나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불안이라도 있는가?」(일본)

-물론 불안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어떤 형태의 공장이라도 그 나름대로의 위험은 수반되기 때문이다. 그린피스들이 방사능오염이 있다고 하여 피난을 하는 소동도 있었다. 그러나 세라필드의 경우에는 매우 엄격한 측정과 방사능 관리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으며, 또한 그런 일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부동산회사 근무·30대 남성 : 영국 시즈케일)

## 徹底한 各國의 公開主義

방문국은 스웨덴, 서독, 프랑스, 스위스, 영국 등 5개국이었으며, 각국 모두 체르노빌사고의 영향과 에너지사정의 차이 등을 근거로 하여 각각 원자력PA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었으며, 공통점을 찾으면 다음과 같다.

① 정보 및 시설의 공개를 한층 더 철저히 한다.

② 매스컴대응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공개주의에 철저함을 이해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③ 학교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자력견학코스를 마련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홍보담당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설명하거나 견학안내를 하고 있다.

④ 원자력시설에서는 여성종업원의 진출이 두드러져 있다. 스웨덴에서는 여성이 저·중준위 방사성폐기물저장장 출입구의 방사선관리측정을 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고속로 슈퍼피닉스발전소의 PR館, 영국에서도 세라필드채처리공장의 PR館과 관리구역에 대한 안내 및 세탁실에도 여성이 진출해 있고 가드우먼도 있다.

### 注目되는 「오픈·도어·시스템」

이런 점을 근거로 이 보고서는 일본에서 원자력PA활동을 전개해 가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점을 제안하고 있다.

그 제안의 하나로서 들고 있는 것이 「시설의 공개」이다.

스웨덴 폴스마크발전소의 철저한 공개주의, 그리고 영국핵연료공사(BNFL) 세라필드채처리공장의 「오픈·도어·시스템(시설공개제도)」은 본받을 만 하였다.

어느 시설이나 ① 국가의 안전에 관한 것, ② 상업적·법률적으로 지켜야 할 비밀, ③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정보·설비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런 자세는 「우리는 숨길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말뿐 아니라 태도로 일반대중에게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폴스마크발전소에서는 최신예버스 5대를 소유하고 견학자에 대응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프랑스와 영국에서도 전문여성홍보담당자가 학교에 원자력발전소 견학을 권유하고 있다. 또 영국핵연료공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으로 관광사업회사를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견학자를 권유하고 있다.

### 輿論調査를 實行해야 할 時期

두번째 제안은 「정기적인 원자력여론조사의 회수를 늘려, 그 결과를 분석하여 원자력PA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문한 스웨덴, 서독, 프랑스, 영국은 몇가지 형태로 원자력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와 영국은 개발초기부터 10년 이상이나 3개월에 한번의 비율로 조사를 실시하여 지지율의 상승, 하락의 원인을 확실하게 분석하고 있다.

자료가 될 샘플의 수는 1,000명으로 적지만, 국민 각층으로부터 추출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생각의 반영으로 되어 있다. 질문내용도 간단하고, 너무 많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전력회사가 자주적으로 필요시에 설문서를 배포·회수한다는 생각일 것이다. 이 방법이라면 신문사 등의 매스컴이 실시하는 이상의 精度와 頻度로 실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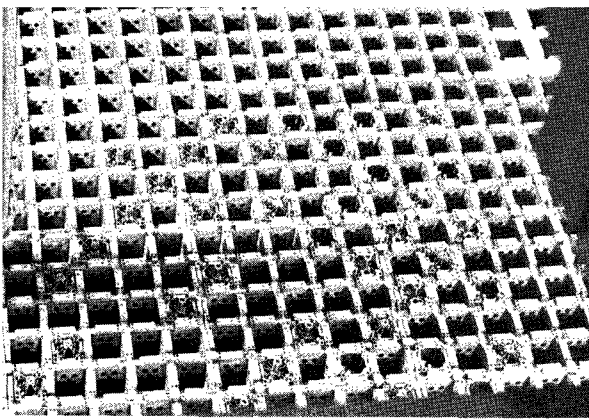
전력회사 스스로가 실시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조사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原子力이 클린에너지임을 強調

「산성비, 온실효과 등 지구환경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잘 주지시켜야 한다」는 것이 세번째의 제안이다.

화석연료에 비해 원자력발전은 환경에 주는 충격이 적다는 것이 그 이유다.

스웨덴, 서독, 프랑스, 영국 등 각국에서 들은 것은 산성비문제, 프레온가스와 온실효과 등 지구규모에서의 환경파괴에 관한 화제가 많았다



고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듯이 원자력발전의 클린성을 더 한층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國際的인 原子力情報시스템을

스웨덴, 스위스, 서독, 프랑스, 영국 등 모든 방문국에서 방문국에 관한 일본의 주간지, 월간지 등에 게재된 원자력관계의 기사에 착오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그 대부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근거가 없는 정보임을 알았다.

해외의 관계자로 부터도 앞으로 이런 기사에 관한 사실확인에 응하고 싶다는 취지의 요청이 있었다.

이상의 근거로 보고서는 해외에서의 올바른 정보를 조기에 입수하여, 의도적인 기사에 대해서는 정확히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자력PA에 관한 정보교환의 국제적 루트를 조속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 女性の 積極的인 活用을

네번째 제안은 여성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이에 자극받은 탓인지 어느 협회가 매월 주최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원자력강좌」는 어느 것이나 활황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여성홍보담당자, 여성종업원에 의한 홍보에 더욱 연구를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스웨덴의 저·중준위 방사성폐기물저장소

(SFR)에서 방사능 측정을 하는 여성전문가, 프랑스 슈퍼피닉스발전소에서의 여성홍보담당관, 영국 세라필드재처리공장 방문객센터의 홍보담당 안내자, 가드우먼, 세탁서비스, 식당의 여성 등 원자력시설에서 일하는 상당한 수에 이르는 여성의 모습이 인상적이며, 그것이 견학자에게 안심감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학교에 대한 견학 권유나 설명 등에도 여성홍보담당자가 활약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그것을 크게 참고로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 重要한 輿論指導層에 대한 接近

마지막 제안은 「교사, 의사 등 여론지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10년 이상 전부터 초·중·고의 사회과에서 원자력을 다루고 있으며, 올바른 기초지식의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당시의 학교 교육을 받은 세대가 현재 청년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다른 구주제국과 달리 원자력개발에 대해 청년층의 이해를 얻고 있다.

EDF(프랑스전력공사)에서는 문교부의 허가를 얻어 파리를 중심으로 각 지방의 초·중·고를 대상으로 원자력발전에 관한 자료명을 기재한 캐털로그를 年 2회 보내고 있으며, 학교로부터의 희망에 따라 교재를 보내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체르노빌사고후 그 영향을 걱정한 의사가 발전소를 방문하거나, 전화에 의한 질문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의사에 대해 EDF의 촉탁의사에 의한 정보제공의 모임을 갖게 하든가, 의사대상의 발전소견학회를 실시하고 있다.

또 자료캐털로그를 年 2회 송부함과 동시에, 요구에 따라 자료를 송부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있다.